

경인지역 대학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실태

최효선·장경자^{1)*}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¹⁾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Incheon Areas

Hyo-Seon Choi, Kyung-Ja Chang^{1)*}

Majors in Home-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¹⁾Dep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f the college students attending nutrition education. The subjects were 387 college students (male 53.2%, female 46.8%) at universities in the Seoul and Incheon area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percentage of subjects who purchas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as 37.2%. The most purchas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ere vegetables. The main reason for preferring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as good for health (53.7%). Also, the main motive of purchasing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as for health (87.5%). For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ey answered 'safety' (4.19), 'freshness' (4.03) and 'nutrition' (3.90), respectively. For college students' right choice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formation and consumer education on these products are necessary.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2(6) : 742-751, 2007)

KEY WORDS :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 utilization · college student

서론

친환경농산물은 1997년에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고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이다(Choi 2007;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2006).

최근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고, 건강은 물론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양

식의 변화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im 등 2006). 최근 보도에 의하면 백화점과 할인점에서는 유기농 식품 값이 30~50% 비싸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25~55% 정도 늘어났고 특히 유기농 청과는 100% 신장세를 기록했고, 유기농 야채류는 1.5배 이상 급증했다(Hong 2006).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로 대기업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진출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인점이 생겨났으며 친환경 농가도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 27배나 증가하였다(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2006).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인증면적은 2000년 2,000 ha에서 2005년 50,000 ha로 25배 증가하였고, 인증량은 2000년 35,000톤에서 2005년 789,000톤으로 23배나 증가하였고 인증 유형별로는 2005년 유기농산물이 2.8%, 전환기 유기 3.8%, 무농약 30.3%, 저농약 61.1%로 당장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저농약 농산물의 생산이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별 생산량은 2005년에 총 798,000톤으로 채소 40.9%, 과실 36.2%, 곡류 11.7%, 특작류 9.2%, 서류 2.0% 기타 0.04%순으로 채소와 과실이 가장 많았다(National Agri-

접수일: 2007년 10월 12일 접수

채택일: 2007년 11월 5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Kyung Ja Cha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3 Korea

Tel: (032) 860-8126, Fax: (032) 862-8120

E-mail: kjchang@inha.ac.kr

cultural Products Management Service 2006).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의 친환경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27개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맡고 있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인증의 종류가 4종류에서 3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간소화되었다(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2006).

유엔 FAO 산하의 국제식품규정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유기농산물에 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였다. 국제기준은 유럽연합과 국제유기농연맹의 유기농산물 기준을 토대로 제정되고 있다. 이 지침은 생산규격, 판매규격, 검사방법, 표시방법 등에서 유기식품이 갖추어야 할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함께 규정하여 유기식품으로 인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가공식품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Bae 2006).

선행연구로서 2000년 농협 하나로점 고객중심으로 한 유기농산물의 소비형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으며 유기농산물의 사전지식이 소비에 절대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0). 2004년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구입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엽채류(88.8%), 과일류(42.5%), 곡류/잡곡류(40.5%), 축산류(26.0%), 서류(12.3%)순이었고 일반농산물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Kim 2004). 2005년 건강관심도와 환경관심도가 유기농산물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와 환경관심도가 높으면 유기농산물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5). 2006년 대전광역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대한 소비자행태 조사 분석에서는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비료나 농약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으며 구입하는 이유는 건강에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값이 너무 비싸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Lee 2006).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해마다 평균 1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식품의 형태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Bae 2006) 친환경농산물의 미래 주축 소비자로서 올바른

식품선택이 매우 중요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이용실태 대해 알아보려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인천에 위치한 대학교 2개교에서 영양 및 체중조절에 관한 교양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1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남자 206명, 여자 182명 총 387명의 설문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설문지는 친환경 농산물에 관한 선행 연구(Kim BK 2000, Kim YS 2004)를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문항을 골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 기입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1) 일반 및 건강관련 사항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 및 건강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거주형태, 아르바이트의 유무,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 인식 정도, 영양제 및 건강 보조식품의 섭취 여부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의 신장은 신발을 벗고 선 상태에서 신장 측정기(bodimeter 20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nbody 3.0(Bioelectrical Impedance Fatness Analyzer, (주)바이오 스페이스)을 이용하여 체중(kg),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체지방률, 복부지방 여부, 비만도(%), 신체발달 점수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비만정도는 BMI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대한비만학회의 분류에 의해 BMI가 18.5미만이면 저체중군, 18.5~22.9면 정상체중군, 23.0~24.9면 과체중군, 25.0~29.9면 비만 I, 30.0~34.9면 비만 II, 40.0이상이면 비만 III(극단적인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2) 친환경농산물 이용실태

친환경농산물 구입여부, 구입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와 친환경 농산물 구매 이유, 일반농산물과 비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정도, 향후 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정도에 대해서는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Likert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조금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점수화 하였다.

3. 통계분석

조사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Ver. 12.0)을 이용하였다. 각 조사항목에 따라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변인간의 통계수치 차이의 유의성은 χ^2 -test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집단간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는 일원분산(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일반 및 건강관련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총 387명으로, 남학생 206명 (53.2%), 여학생 181명 (46.8%)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분포는 24~26세 34.1%, 21~23세 32.3%, 20세 이하 30.3%, 27세 이상 3.6% 순으로 27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남학생은 24~26세가 57.3%, 여학생은 21~23세가 48.6%로 조사되었다 ($p < 0.001$). 남학생은 병역복무 후 복학한 학생들이 다수 있어서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형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 65.9%, 자취 26.1%, 기숙사 4.9%, 하숙 2.1%, 친척집 1.0% 순으로 대부분 자기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59.7%, 72.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1$).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72.9%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81.6%, 63.0%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01$).

체질량지수(BMI)는 대한비만학회의 BMI 분류에 따라 정상체중 203명 (52.5%), 과체중 76명 (19.6%), 비만I 72명 (18.6), 저체중 21명 (5.4%), 비만II 12명 (3.1%), 비만III 3명 (0.8%) 순으로 대부분 정상체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상체중이 각각 38.3%, 68.5%로 정상체중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01$).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49.6%, ‘양호하다’ 42.6%, ‘약하다’ 7.8% 순으로 대부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통이라고 생

각하는 경우가 각각 49.0%, 50.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품 이외에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먹지 않는다’ 76.5%, ‘영양제’ 15.2%, ‘건강보조식품’ 4.7%, ‘약’ 3.6% 순으로 대부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먹지 않는다’가 각각 83.5%, 68.5%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식품 이외에 건강을 위해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1$).

2. 친환경농산물 이용 실태

1) 구입여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응답자는 37.2%,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72.8%로 나타났다.

일반 및 건강관련 특성과 친환경농산물의 구입 여부에 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ale (n = 206)	Female (n = 181)	Total	χ^2 value
Age (years)				
≤ 20	38 (18.4) ¹⁾	78 (43.1)	116 (30.0)	125.736***
21 - 23	37 (18.0)	88 (48.6)	125 (32.3)	
24 - 26	118 (57.3)	14 (7.7)	132 (34.1)	
≥ 27	13 (6.3)	1 (0.6)	10 (3.6)	
Residential type				
Own house	123 (59.7)	132 (72.9)	255 (65.9)	16.885**
Self Boarding	70 (34.0)	31 (17.1)	101 (26.1)	
Boarding	2 (1.0)	6 (3.3)	8 (2.1)	
Dormitory	10 (4.9)	9 (5.0)	19 (4.9)	
Relative's house	1 (0.3)	3 (1.7)	4 (1.0)	
Part-time job				
Employed	38 (18.4)	67 (37.0)	105 (27.1)	16.805***
Unemployed	168 (81.6)	114 (63.0)	282 (72.9)	
BMI (kg/m²)				
Underweight	4 (1.9)	17 (9.4)	21 (5.4)	61.060***
Normal	79 (38.3)	124 (68.5)	203 (52.5)	
Overweight	53 (25.7)	23 (12.7)	76 (19.6)	
Obesity I	58 (28.2)	14 (7.7)	72 (18.6)	
Obesity II	10 (4.9)	2 (1.1)	12 (3.1)	
Obesity III	2 (1.0)	1 (0.6)	3 (0.8)	
Self-reported health status				
Good	94 (45.6)	71 (39.2)	165 (42.6)	4.263 ^{NS2)}
So-so	101 (49.0)	91 (50.3)	192 (49.6)	
Bad	11 (5.3)	19 (10.5)	30 (7.8)	
Supplements for health				
Medicine	6 (2.9)	8 (4.4)	14 (3.6)	13.987**
Nutrient	19 (9.2)	40 (22.1)	59 (15.2)	
Health foods	9 (4.4)	9 (5.0)	18 (4.7)	
None	172 (83.5)	124 (68.5)	296 (76.5)	

1) N (%)

2)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test

** : p < 0.01, *** : p < 0.001

른 유의적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품 이외에 건강을 위해 약을 섭취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응답자가 4.2%, 구입하지 않는 응답자는 3.3%로 나타났고, 영양제를 섭취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응답자가 21.5%, 구입하지 않는 응답자가 11.5%이었으며,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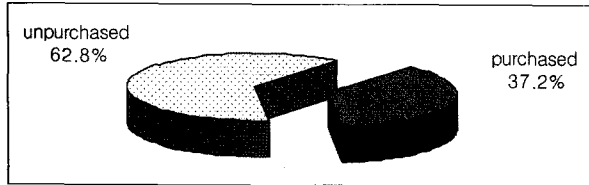


Fig. 1. Purchas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able 2.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purchas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Yes	No	Total	χ^2 value
Gender				
Male	71 (49.3) ¹⁾	135 (55.6)	206 (53.2)	1.419 ^{NS2)}
Female	73 (50.7)	108 (44.4)	181 (46.8)	
Age (years)				
≤ 20	47 (32.6)	69 (28.4)	116 (30.0)	1.432 ^{NS}
21 - 23	42 (29.2)	83 (34.2)	125 (32.3)	
24 - 26	49 (34.0)	83 (34.2)	132 (34.1)	
≥ 27	6 (4.2)	8 (3.3)	14 (3.6)	
Residential type				
Own house	97 (67.4)	158 (65.0)	255 (65.9)	1.714 ^{NS}
Self Boarding	34 (23.6)	67 (27.6)	101 (26.1)	
Boarding	3 (2.1)	5 (2.1)	8 (2.1)	
Dormitory	9 (6.3)	10 (4.1)	19 (4.9)	
Relative's house	1 (0.7)	3 (1.2)	4 (1.0)	
Part-time job				
Employed	31 (21.5)	74 (30.5)	105 (27.1)	3.643 ^{NS}
Unemployed	113 (78.5)	169 (69.5)	282 (72.9)	
Weight status				
Underweight	4 (2.8)	17 (7.0)	21 (5.4)	5.127 ^{NS}
Normal	84 (58.3)	119 (49.0)	203 (52.5)	
Overweight	27 (18.8)	49 (20.2)	76 (19.6)	
Obesity I	24 (16.7)	48 (19.8)	72 (18.6)	
Obesity II	4 (2.8)	8 (3.3)	12 (3.1)	
Obesity III	1 (0.7)	2 (0.8)	3 (0.8)	
Self-reported health status				
Good	65 (45.1)	100 (41.2)	165 (42.6)	0.605 ^{NS}
So-so	68 (47.2)	124 (51.0)	192 (49.6)	
Bad	11 (7.6)	19 (7.8)	30 (7.8)	
Supplements for health				
Medicine	6 (4.2)	8 (3.3)	14 (3.6)	8.326*
Nutrient	31 (21.5)	28 (11.5)	59 (15.2)	
Health foods	8 (5.6)	10 (4.1)	18 (4.7)	
None	99 (68.8)	197 (81.1)	296 (76.5)	
Total	144 (37.2)	243 (62.8)	387 (100.0)	

1) N (%)

2)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test

*: p < 0.05.

답자가 5.6%, 구입하지 않는 응답자가 4.1%로 건강을 위해 약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경우가 친환경농산물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p < 0.05).

2) 구입종류

친환경농산물의 구입 종류에 대한 결과는 Fig. 2와 같다.엽채류가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곡류·잡곡류 28.9%, 과일류 17.4%, 축산류와 서류가 각각 5.5%, 기타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선호이유

친환경농산물의 선호 이유에 대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친환경농산물이 건강에 좋으므로'가 53.7%, '일반농산물이 유해물질이 많으므로' 22.8%, '품질이 좋으므로' 18.9%, '맛이 좋으므로' 3.4%,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와 '기타'가 각각 0.7% 순으로 나타났다.

4) 구매동기

친환경농산물의 구매 동기에 대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동기로 '건강을 위하여'가 87.5%로 매우 높았고,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9.0%, '주위의 권유로' 2.1%, '환경보호를 위하여'와 '기타'가 각각 0.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BMI에 따른 분류에서 정상에 속하는 경우에 건강을 위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과체중이나 비만에 비해 높아서 BMI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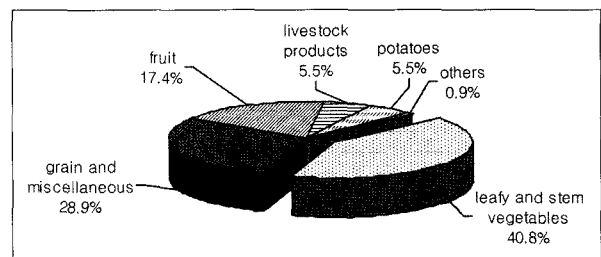


Fig. 2. Type of purchas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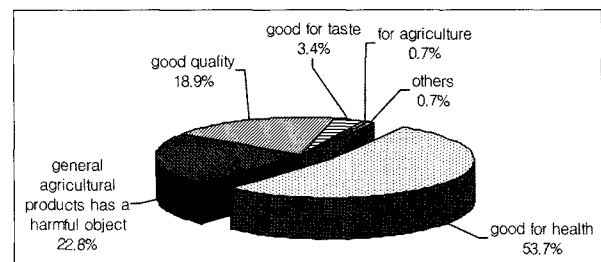


Fig. 3. Reason for preferr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5) 품질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정도에 대해서는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Likert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조금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점수화하여 얻은 결과는 Fig.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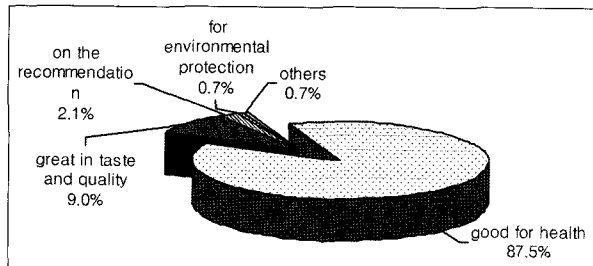


Fig. 4. Motive for buy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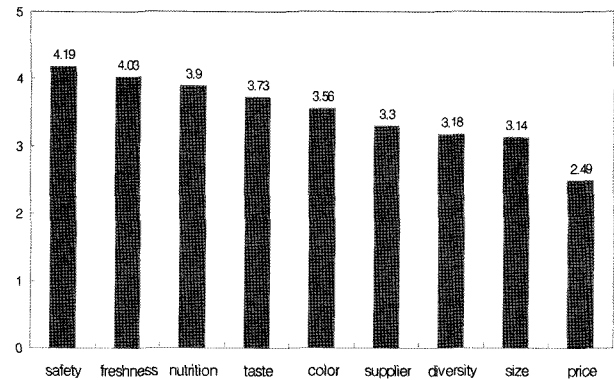


Fig. 5. Qualit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able 3. Motive for buy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ood for health	Great in taste and quality	by recommend 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thers	Total
Gender	Male	62 (49.2) ¹⁾	6 (46.2)	2 (66.7)	1 (100.0)	0 (0.0)	71 (49.3)
	Female	64 (50.8)	7 (53.8)	1 (33.3)	0 (0.0)	1 (100.0)	73 (50.7)
	χ^2 value	2.415 ^{NS2)}					
Age (years)	≤ 20	44 (34.9)	2 (15.4)	0 (0.0)	0 (0.0)	1 (100.0)	47 (32.6)
	21~23	35 (27.8)	6 (46.2)	1 (33.3)	0 (0.0)	0 (0.0)	42 (29.2)
	24~26	42 (33.3)	5 (38.5)	1 (33.3)	1 (100.0)	0 (0.0)	49 (34.0)
	≥ 27	5 (4.0)	0 (0.0)	1 (33.3)	0 (0.0)	0 (0.0)	6 (4.2)
	χ^2 value	14.528 ^{NS}					
Residential type	Own house	86 (63.8)	9 (69.2)	0 (0.0)	1 (100.0)	1 (100.0)	97 (67.4)
	Self Boarding	29 (23.0)	3 (15.4)	3 (100.0)	0 (0.0)	0 (0.0)	34 (23.6)
	Boarding	3 (2.4)	0 (0.0)	0 (0.0)	0 (0.0)	0 (0.0)	3 (2.1)
	Dormitory	7 (5.6)	3 (15.4)	0 (0.0)	0 (0.0)	0 (0.0)	7 (6.3)
	Relative's house	1 (0.8)	0 (0.0)	0 (0.0)	0 (0.0)	0 (0.0)	1 (0.7)
	χ^2 value	13.353 ^{NS}					
Part-time job	Employed	29 (23.0)	1 (7.7)	1 (33.3)	0 (0.0)	0 (0.0)	31 (21.5)
	Unemployed	97 (77.0)	12 (92.3)	2 (66.7)	1 (100.0)	1 (100.0)	113 (78.5)
	χ^2 value	2.434 ^{NS}					
BMI (kg/m ²)	Underweight	4 (3.2)	0 (0.0)	0 (0.0)	0 (0.0)	0 (0.0)	4 (2.8)
	Standard	75 (59.5)	7 (53.8)	1 (33.3)	0 (0.0)	1 (100.0)	84 (58.3)
	Overweight	22 (17.5)	3 (23.1)	1 (33.3)	1 (100.0)	0 (0.0)	27 (18.8)
	Obesity I	21 (16.7)	3 (23.1)	0 (0.0)	0 (0.0)	0 (0.0)	24 (16.7)
	Obesity II	4 (3.2)	0 (0.0)	0 (0.0)	0 (0.0)	0 (0.0)	4 (2.8)
	Obesity III	0 (0.0)	0 (0.0)	1 (33.3)	0 (0.0)	0 (0.0)	1 (0.7)
	χ^2 value	54.865 ^{***}					
Self-reported health status	Good	55 (43.7)	8 (61.5)	0 (0.0)	1 (100.0)	1 (100.0)	65 (45.1)
	So-so	60 (47.6)	5 (38.5)	3 (100.0)	0 (0.0)	0 (0.0)	68 (47.2)
	Bad	11 (8.7)	0 (0.0)	0 (0.0)	0 (0.0)	0 (0.0)	11 (7.6)
	χ^2 value	8.025 ^{NS}					
Supplements for health	Medicine	6 (4.8)	0 (0.0)	0 (0.0)	0 (0.0)	0 (0.0)	6 (4.2)
	Nutrient	29 (23.0)	1 (7.7)	1 (33.3)	0 (0.0)	0 (0.0)	31 (21.5)
	Health foods	8 (6.3)	0 (0.0)	0 (0.0)	0 (0.0)	0 (0.0)	8 (5.6)
	None	83 (65.9)	12 (92.3)	2 (66.7)	1 (100.0)	1 (100.0)	99 (68.8)
	χ^2 value	5.397 ^{NS}					
Total		126 (87.5)	13 (9.0)	3 (2.1)	1 (0.7)	1 (0.7)	144 (100.0)

1) N (%)

2)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 p < 0.001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이 안전성에서 4.1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신선도 4.03, 영양 3.90, 맛 3.73, 색깔 3.56, 공급자 3.30, 다양성 3.18, 크기 3.14, 가격 2.49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이 신선하고, 영양도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가격과 크기 면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항과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유의적 차이에 대

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친환경농산물의 맛이 3.59, 여학생이 3.86으로 여학생이 친환경농산물이 유의적으로 더 맛있다고 평가하였다($p < 0.05$).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남학생이 2.34, 여학생이 2.64로 남학생이 가격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남녀간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건강을 위해 음식이외에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Table 4. Qualit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afety	Freshness	Nutrition	Taste	Color	Supplier	Diversity	Size	Price
Gender									
Male	4.21 ± 0.6 ¹⁾	4.00 ± 0.7	3.80 ± 0.6	3.59 ± 0.6	3.51 ± 0.6	3.27 ± 0.8	3.08 ± 0.8	3.07 ± 0.7	2.34 ± 0.9
Female	4.18 ± 0.6	4.05 ± 0.6	4.00 ± 0.7	3.86 ± 0.7	3.62 ± 0.7	3.33 ± 0.6	3.27 ± 0.8	3.21 ± 0.7	2.64 ± 0.8
F-value	0.111 ^{NS2)}	0.241 ^{NS}	3.046 ^{NS}	6.300*	1.037 ^{NS}	0.265 ^{NS}	2.133 ^{NS}	1.360 ^{NS}	5.051*
Age (years)									
≤ 20	4.32 ± 0.6	4.06 ± 0.7	4.04 ± 0.7	3.72 ± 0.7	3.45 ± 0.7	3.32 ± 0.6	3.15 ± 0.7	3.04 ± 0.6	2.43 ± 0.8
21 - 23	4.19 ± 0.6	4.12 ± 0.7	4.00 ± 0.8	3.90 ± 0.7	3.67 ± 0.7	3.33 ± 0.8	3.26 ± 0.8	3.29 ± 0.7	2.69 ± 0.7
24 - 26	4.06 ± 0.6	3.88 ± 0.7	3.69 ± 0.6	3.57 ± 0.5	3.55 ± 0.5	3.24 ± 0.8	3.14 ± 0.9	3.04 ± 0.7	2.37 ± 0.9
≥ 27	4.33 ± 0.6	4.33 ± 0.5	3.83 ± 0.8	3.83 ± 0.7	3.83 ± 0.8	3.33 ± 0.5	3.17 ± 0.8	3.67 ± 0.8	2.67 ± 0.8
F-value	1.641 ^{NS}	1.568 ^{NS}	2.573 ^{NS}	2.012 ^{NS}	1.234 ^{NS}	0.142 ^{NS}	0.212 ^{NS}	2.473 ^{NS}	1.376 ^{NS}
Residential type									
Own house	4.16 ± 0.6	3.98 ± 0.6	3.90 ± 0.6	3.76 ± 0.6	3.55 ± 0.6	3.27 ± 0.7	3.22 ± 0.7	3.08 ± 0.7	2.57 ± 0.8
Self Boarding	4.18 ± 0.7	4.18 ± 0.8	3.85 ± 0.8	3.65 ± 0.7	3.59 ± 0.7	3.35 ± 0.7	3.09 ± 0.9	3.32 ± 0.7	2.38 ± 0.9
Boarding	4.67 ± 0.6	3.33 ± 0.6	4.00 ± 0.0	3.67 ± 0.6	3.00 ± 1.0	3.33 ± 0.6	3.00 ± 1.0	2.67 ± 0.6	2.00 ± 0.0
Dormitory	4.44 ± 0.7	4.22 ± 0.7	4.22 ± 0.8	3.78 ± 0.7	3.89 ± 0.6	3.33 ± 0.7	3.22 ± 1.0	3.22 ± 0.5	2.33 ± 0.7
Relative's house	4.00 ± 0.0	4.00 ± 0.0	3.00 ± 0.0	3.00 ± 0.0	3.00 ± 0.0	4.00 ± 0.0	3.00 ± 0.0	3.00 ± 0.0	2.00 ± 0.0
F-value	0.964 ^{NS}	1.573 ^{NS}	0.992 ^{NS}	0.511 ^{NS}	1.381 ^{NS}	0.339 ^{NS}	0.225 ^{NS}	1.151 ^{NS}	0.779 ^{NS}
Part-time job									
Employed	4.06 ± 0.6	4.00 ± 0.5	3.84 ± 0.6	3.68 ± 0.6	3.68 ± 0.7	3.16 ± 0.5	3.06 ± 0.7	3.00 ± 0.5	2.55 ± 0.7
Unemployed	4.23 ± 0.6	4.04 ± 0.7	3.92 ± 0.7	3.74 ± 0.7	3.53 ± 0.6	3.34 ± 0.8	3.21 ± 0.8	3.18 ± 0.7	2.48 ± 0.9
F-value	1.898 ^{NS}	0.068 ^{NS}	0.346 ^{NS}	0.241 ^{NS}	1.257 ^{NS}	1.481 ^{NS}	0.870 ^{NS}	1.581 ^{NS}	0.175 ^{NS}
BMI (kg/m²)									
Underweight	4.00 ± 0.0	4.25 ± 0.5	4.25 ± 0.5	4.25 ± 0.5	4.00 ± 0.0	3.25 ± 0.5	2.75 ± 0.5	3.50 ± 0.6	3.25 ± 0.5
Standard	4.20 ± 0.6	4.04 ± 0.7	3.87 ± 0.7	3.71 ± 0.7	3.54 ± 0.6	3.33 ± 0.7	3.23 ± 0.8	3.13 ± 0.6	2.49 ± 0.8
Overweight	4.26 ± 0.7	4.04 ± 0.7	4.04 ± 0.7	3.81 ± 0.7	3.59 ± 0.7	3.37 ± 0.6	3.11 ± 0.8	3.30 ± 0.7	2.63 ± 0.8
Obesity I	4.21 ± 0.4	4.00 ± 0.7	3.79 ± 0.6	3.67 ± 0.5	3.58 ± 0.8	3.08 ± 0.9	3.13 ± 0.9	2.92 ± 0.9	2.38 ± 0.9
Obesity II	4.00 ± 0.0	4.00 ± 0.0	4.25 ± 0.5	3.50 ± 0.6	3.50 ± 0.6	3.50 ± 0.6	3.50 ± 0.6	3.25 ± 0.5	2.00 ± 0.0
Obesity III	3.00 ± 0.0	3.00 ± 0.0	3.00 ± 0.0	3.00 ± 0.0	3.00 ± 0.0	3.00 ± 0.0	3.00 ± 0.0	3.00 ± 0.0	1.00 ± 0.0
F-value	1.050 ^{NS}	0.566 ^{NS}	1.147 ^{NS}	0.978 ^{NS}	0.565 ^{NS}	0.631 ^{NS}	0.503 ^{NS}	1.013 ^{NS}	1.907 ^{NS}
Self-reported health status									
Good	4.29 ± 0.6	4.05 ± 0.7	4.05 ± 0.7	3.78 ± 0.6	3.52 ± 0.7	3.42 ± 0.7	3.18 ± 0.7	3.17 ± 0.7	2.52 ± 0.8
So-so	4.13 ± 0.6	4.01 ± 0.7	3.74 ± 0.7	3.62 ± 0.7	3.57 ± 0.6	3.22 ± 0.7	3.16 ± 0.8	3.07 ± 0.7	2.41 ± 0.9
Bad	4.00 ± 0.6	4.00 ± 0.6	4.09 ± 0.5	4.09 ± 0.5	3.73 ± 0.6	3.09 ± 0.8	3.27 ± 0.8	3.36 ± 0.8	2.82 ± 0.6
F-value	1.862 ^{NS}	0.046 ^{NS}	4.065*	2.922 ^{NS}	0.487 ^{NS}	1.778 ^{NS}	0.096 ^{NS}	0.935 ^{NS}	1.223 ^{NS}
Supplements for health									
Medicine	4.50 ± 0.5	4.17 ± 0.8	3.67 ± 0.5	3.50 ± 0.5	3.67 ± 0.8	3.33 ± 0.8	3.33 ± 0.8	3.17 ± 1.0	2.83 ± 0.8
Nutrient	4.19 ± 0.6	3.90 ± 0.7	3.97 ± 0.7	3.94 ± 0.7	3.65 ± 0.7	3.16 ± 0.9	3.19 ± 0.8	3.10 ± 0.7	2.65 ± 0.9
Health foods	4.25 ± 0.7	4.38 ± 0.5	3.88 ± 0.6	4.13 ± 0.6	4.00 ± 0.5	3.38 ± 0.5	3.25 ± 0.9	3.50 ± 0.8	2.75 ± 0.9
None	4.17 ± 0.6	4.03 ± 0.7	3.90 ± 0.7	3.65 ± 0.6	3.49 ± 0.6	3.33 ± 0.7	3.16 ± 0.8	3.12 ± 0.7	2.40 ± 0.8
F-value	0.595 ^{NS}	1.169 ^{NS}	0.334 ^{NS}	2.826*	1.844 ^{NS}	0.495 ^{NS}	0.118 ^{NS}	0.777 ^{NS}	1.335 ^{NS}
Total	4.19 ± 0.6	4.03 ± 0.7	3.90 ± 0.7	3.73 ± 0.7	3.56 ± 0.6	3.30 ± 0.7	3.18 ± 0.8	3.14 ± 0.7	2.49 ± 0.8

1) Mean ± SD

2) NS: not significant by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 $p < 0.05$

4.13, 영양제 섭취시 3.94,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응답자 3.65, 약 3.50 순으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6) 향후 이용

(1) 일반 및 건강관련사항과 친환경농산물 구입여부에 따른 발전전망

친환경농산물의 발전전망에 대한 결과는 Table 5과 같

다. 친환경농산물이 전망이 있는 편이다가 63.8%로 대부분 이었고, 그저 그렇다 17.8%, 매우 전망이 있다 17.1%, 전망이 없는 편이다 1.0%, 거의 전망이 없다 0.3%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친환경농산물의 발전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았다.

연령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발전전망에 대해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 < 0.01), 친환경농산물의 전망이 있는

Table 5. Prospect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ery good prospect	Good prospect	Mediocre	Bad prospect	Very bad prospect	Total
Gender						
Male	32 (48.5) ¹⁾	127 (51.4)	42 (60.9)	4 (100.0)	1 (100.0)	206 (53.2)
Female	34 (51.5)	120 (48.6)	27 (39.1)	0 (0.0)	0 (0.0)	181 (46.8)
χ^2 value	6.934 ^{NS2)}					
Age (years)						
≤ 20	15 (22.7)	76 (30.8)	25 (36.2)	0 (0.0)	0 (0.0)	116 (30.0)
21 – 23	24 (36.4)	80 (32.4)	19 (27.5)	2 (50.0)	0 (0.0)	125 (32.3)
24 – 26	24 (36.4)	83 (33.6)	23 (33.3)	2 (50.0)	0 (0.0)	132 (34.1)
≥ 27	3 (4.5)	8 (3.2)	2 (2.9)	0 (0.0)	1 (100.0)	14 (3.6)
χ^2 value	32.086**					
Residential type						
Own house	43 (65.2)	167 (67.6)	41 (59.4)	4 (100.0)	0 (0.0)	255 (65.9)
Self Boarding	19 (28.8)	58 (23.5)	23 (33.3)	0 (0.0)	1 (100.0)	101 (26.1)
Boarding	1 (1.5)	5 (2.0)	2 (2.9)	0 (0.0)	0 (0.0)	8 (2.1)
Dormitory	3 (4.5)	14 (5.7)	2 (2.9)	0 (0.0)	0 (0.0)	19 (4.9)
Relative's house	0 (0.0)	3 (1.2)	1 (1.4)	0 (0.0)	0 (0.0)	4 (1.0)
χ^2 value	9.754 ^{NS}					
Part-time job						
Employed	16 (24.2)	71 (28.7)	18 (26.1)	0 (0.0)	0 (0.0)	105 (27.1)
Unemployed	50 (75.8)	176 (71.3)	51 (73.9)	4 (100.0)	1 (100.0)	282 (72.9)
χ^2 value	2.504 ^{NS}					
BMI (kg/m²)						
Underweight	4 (6.1)	14 (5.7)	3 (4.3)	0 (0.0)	0 (0.0)	21 (5.4)
Standard	32 (48.5)	134 (54.3)	34 (49.3)	3 (75.0)	0 (0.0)	203 (52.5)
Overweight	14 (21.2)	47 (19.0)	13 (18.8)	1 (25.0)	1 (100.0)	76 (19.6)
Obesity I	13 (19.7)	43 (17.4)	16 (23.2)	0 (0.0)	0 (0.0)	72 (18.6)
Obesity II	3 (4.5)	8 (3.2)	1 (1.4)	0 (0.0)	0 (0.0)	12 (3.1)
Obesity III	0 (0.0)	1 (0.4)	2 (2.9)	0 (0.0)	0 (0.0)	3 (0.8)
χ^2 value	13.553 ^{NS}					
Self-reported health status						
Good	30 (45.5)	107 (43.3)	26 (37.7)	2 (50.0)	0 (0.0)	165 (42.6)
So-so	31 (47.0)	125 (50.6)	35 (50.7)	1 (25.0)	0 (0.0)	192 (49.6)
Bad	5 (16.7)	15 (6.1)	8 (11.6)	1 (25.0)	1 (100.0)	30 (7.8)
χ^2 value	16.896*					
Supplements for health						
Medicine	4 (6.1)	9 (3.6)	1 (1.4)	0 (0.0)	0 (0.0)	14 (3.6)
Nutrient	11 (16.7)	38 (15.4)	10 (14.5)	0 (0.0)	0 (0.0)	59 (15.2)
Health foods	7 (10.6)	8 (3.2)	3 (4.3)	0 (0.0)	0 (0.0)	18 (4.7)
None	44 (66.7)	192 (77.7)	55 (79.7)	4 (100.0)	1 (100.0)	296 (76.5)
χ^2 value	10.720 ^{NS}					
Total	66 (17.1)	247 (63.8)	69 (17.8)	4 (1.0)	1 (0.3)	387 (100.0)

1) N (%)

2)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 p < 0.05, **: p < 0.01

편이라고 생각한 응답자 중 27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24~26세 33.6%, 21~23세 32.4%, 20세 이하 30.8%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자가 건강상태 평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발전 전망에 대해 유의적 차이가 있어서 ($p < 0.05$), 발전전망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자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50.6%로 가장 많았고, 양호하다 43.3%, 약하다 6.1% 순이었다.

친환경농산물의 구입 여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발전 전망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응답자는 친환경농산물의 발전 전망이 있는 편이다가 63.9%로 가장 높았고, 구입하지 않는 응답자도 전망이 있는 편이다가 63.8%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친환경농산물의 구입여부에 따른 향후 구입의사

친환경농산물의 구입 여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구입의사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구입을 현재정도 유지하겠다는 응답자가 41.7%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늘리겠다는 응답자가 59.3%로 많이 나타나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p < 0.001$).

Table 6. Prospect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purchas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Purchase		Total	χ^2 value
	Yes	No		
Very good prospect	33 (22.9) ¹⁾	33 (13.6)	66 (17.1)	9.123 ^{NS2)}
Good prospect	92 (63.9)	155 (63.8)	247 (63.9)	
Mediocre	18 (12.5)	51 (21.0)	69 (17.8)	
Bad prospect	1 (0.7)	3 (1.2)	4 (1.0)	
Very bad prospect	0 (0.0)	1 (0.4)	1 (0.3)	
Total	144 (37.2)	243 (62.8)	387 (100.0)	

1) N (%)

2)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Table 7. Hereafter purchas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purchas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purchase		Total	χ^2 value
	Yes	No		
More increase	29 (20.1) ¹⁾	25 (10.3)	54 (14.0)	17.374 ^{***2)}
Increase	55 (38.2)	144 (59.3)	199 (51.4)	
Maintain present	60 (41.7)	74 (30.5)	134 (34.6)	
Total	144 (37.2)	243 (62.8)	387 (100.0)	

1) N (%)

2) ***: $p < 0.001$ by chi-square test

고 찰

본 조사결과 건강을 위해 약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경우가 친환경농산물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이는 Park (2005)의 연구에서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금액과 구매비중이 높아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 Ko (2005)의 연구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구입이 채소류가 53.9%로 가장 많았고, Shin 등 (2006)의 연구에서도 채소류가 57.8%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어 본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Kim (2000)의 연구에서 유기농산물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엽채류 (76.4%), 과일류, 곡류 순으로 엽채류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구입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축산류는 인식도가 0.1%로 매우 낮게 나타나 아직 인증에 대한 기반이 취약하여 구입 또한 매우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2005년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별 인증 품 출하량 중 채소류의 출하량이 40.9%로 가장 많은 것이 친환경농산물의 구입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Kim (2000)의 연구에 의하면 유기농산물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Kim 등 (2006)의 연구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서 유기농산물 구입 시 맛이나 외관에 비해 안전성이나 친환경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 (2004)의 유기농 야채의 무기물 및 비타민 함량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야채에 비해 나트륨, 칼륨, 칼슘, 철, 인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는 친환경농산물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Kim (2000)의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 동기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8.4%로 가장 높았고, Kim (2004)의 연구에서도 94.4%로 건강을 위해서가 매우 높았으며, Ko & Ko (2005)의 연구에서는 건강이나 질병치료를 위해서가 40.1%, Lee (2006)의 연구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 건강에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생각해서가 82.6%로 매우 높았다.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wang & Seo (2005)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의 영양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구축과 일반농산물과의 비교연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im(2004)의 연구에서 친환경농산물의 만족요인에 대해 안전성이 4.16으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2.55로 가장 낮았으며, Lee(2006)의 연구에서도 가격(12.9%)에 대한 만족은 안전성(48.2%)과 맛(43.8%)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본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상품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의 개발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이용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서 Kim(2004)의 연구에서도 발전전망이 있는 편이다가 68.2%로 높았으며, Ko & Ko(2005)의 연구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구입할 의사가 있다가 47.5%, 한번 고려해 보겠다. 39.6%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조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용현황을 알아보고자 영양교육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자가 기록식 설문지법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은 총 387명으로, 24~26세가 34.1%로 가장 많았고, 자기 집에 거주 하는 경우가 65.9%로 가장 많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하지 않는 응답자가 72.9%로 많았다.

BMI는 대한비만학회의 분류에 따라 정상체중군이 52.5%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이외에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76.5%로 나타났다.

2)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응답자는 37.2%로 식품 이외에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응답자가 21.5%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 11.5%보다 유의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종류는 엽채류가 61.8%로 가장 많았고, 곡류와 잡곡류가 각각 43.8%, 과일류는 26.4%, 축산류와 서류는 각각 8.3%,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3) 친환경농산물의 선호 이유는 '건강에 좋으므로'가 55.6%로 가장 많았고, '일반농산물이 유해물질이 많으므로' 23.6%, '품질이 좋으므로' 19.4%, '맛이 좋으므로' 3.5%,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와 '기타'가 각각 0.7%순으로 나타났다.

4) 친환경농산물의 구매 동기는 '건강을 위하여'가 87.5%로 가장 많았고, '맛과 질이 우수하여' 9.0%, '주위의 권유로' 2.1%, '환경보호를 위하여'와 '기타'가 각각 0.7% 순으로 나타났으며 BMI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5)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은 안전성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신선도 4.03, 영양 3.90, 맛 3.73, 색깔 3.56, 공급자 3.30, 다양성 3.18, 크기 3.14, 가격 2.49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친환경농산물의 맛과 가격을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식품 이외에 영양제를 섭취하는 경우가 친환경농산물의 맛을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6)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구입을 현재 정도 유지하겠다는 41.7%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늘리겠다는 59.3%로 나타나 향후 구입의사에서는 매우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친환경농산물의 미래 주축 소비자로서 대학생들이 올바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7년도 인하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수행된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 Ahn BR, Rho CY, Kim DH (2005): Analysis of consumer's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ith special reference to consumer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n Res Food Circulation* 22(4): 109-122
- Bae KG (2006): Current situation of agricultural organic products and organic processing food. *Food Science and Industry* 39: 35-51
- Choi HS (2007): The utilization and perception on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f the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Inha University
- Kim CK, Kim TY, Lee HC (2006): Valu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using Fuzzy decision making. *Res Rural Econ* 47(1): 69-88
- Kim HY, Lee KB, YIM HY (2004): Contents of Mineral and Vitamin in Organic Vegetables. *Korean J Food Storage and Circulation* 11(3): 424-429
- Kim MB (2000) : Research on the consumption pattern of organic crop -A research based on hanaro mart customer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 Kim YS (2004): A study on the utilization present status and the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o BS, Ko PS (2005):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ircul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Korean J Culinary Res* 11: 214-227
- Lee JY (2005): Analysis of consumer's behavior on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ith special reference to consumer in Daejeon city-. Graduate school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2006)

- Park HY (2005): A study on effect of health and environment concern on behavior purchasing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Graduate School at Chungang University
- Rho CY, Ahn BY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lifestyle. *Rural Econ* 28(3): 57-68
- Shin CN (2006): A survey on consumption patter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ith special reference to consumer in Changwon, Jinju and Sacheon area. Graduate School of Human Ecology and Environment. 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 Hong JS (2006): <http://economy.hankooki.com>. March 17
- Hwang JB, Seo DW (2005): Nutritional component monitoring and DB constr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od Storage & Processing Industry* 4(2): 62-69
<http://www.naqs.go.kr>